

대한민국 청년,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꿈꾸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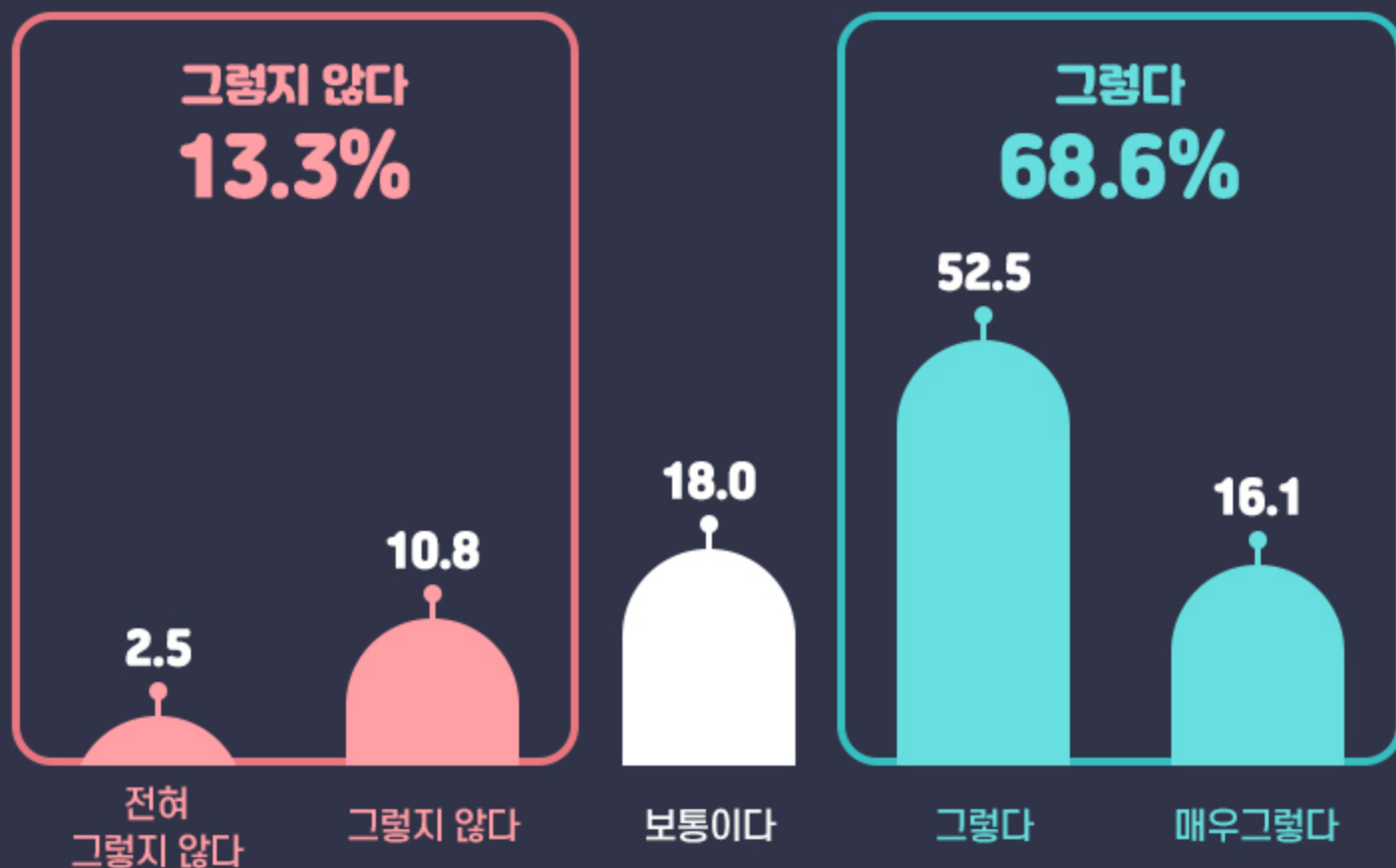
‘N포세대’라는 말, 들어보셨나요?
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, 주택 구입 등
많은 것을 포기한 청년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요.



이들은 여러 사회적 요인 중에서도 '내 집 마련'에
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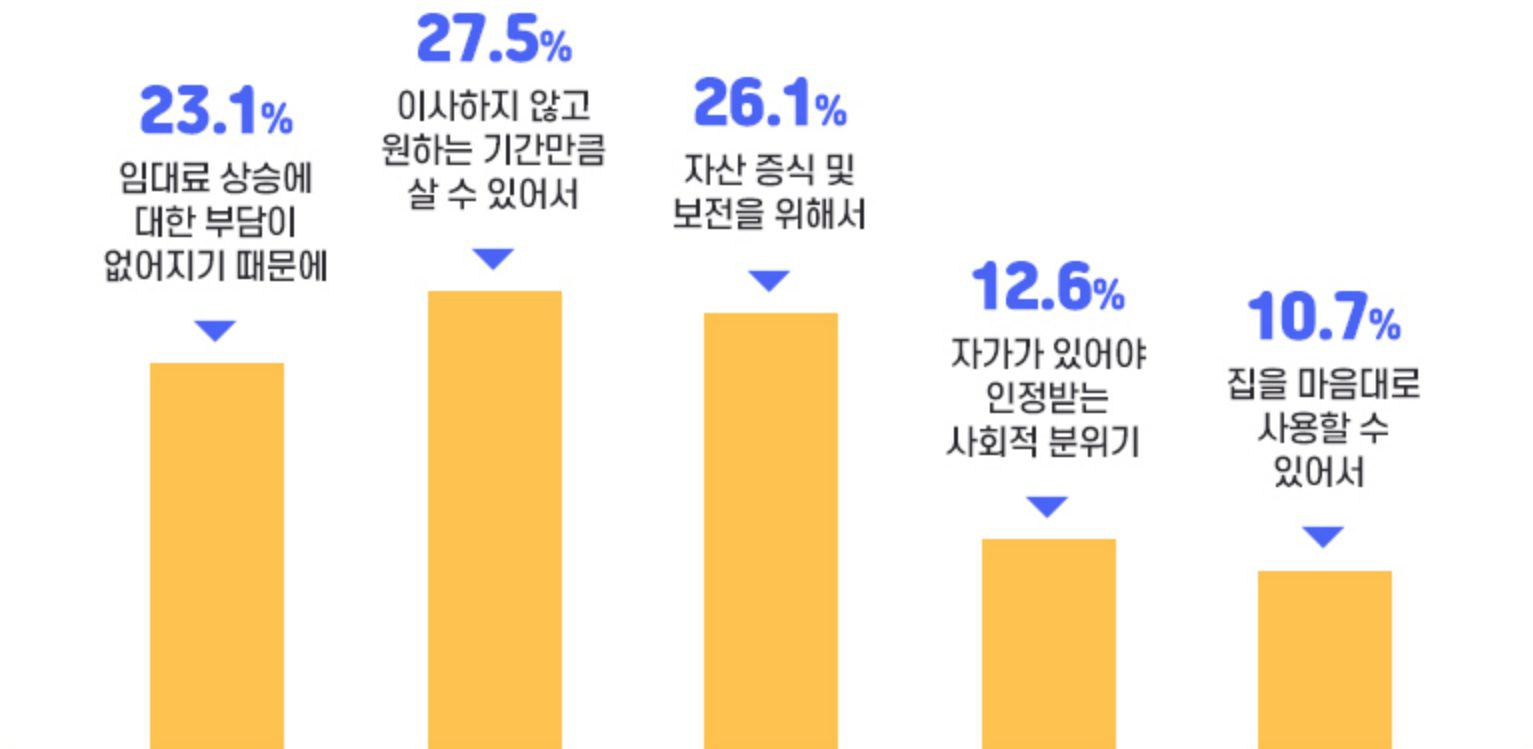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만 18~34세 3,520명을 대상으로
 실시한 '2020년 청년 사회·경제 실태조사'
 응답자의 68.6%가 '내 명의의 집이 꼭 있어야 한다'고 응답했습니다.

평소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가?



청년들은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한 이유로
'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기 때문'이라고 답했는데요.
자산 증식 및 보전, 임대료 상승 부담 완화가 뒤를 이었습니다.

내 명의의 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?



하지만 청년들의 소망 및 바람과 달리
주택 가격은 해를 거듭할 수록 상승하고 있는데요.

지금 집 값의 수준, 적당한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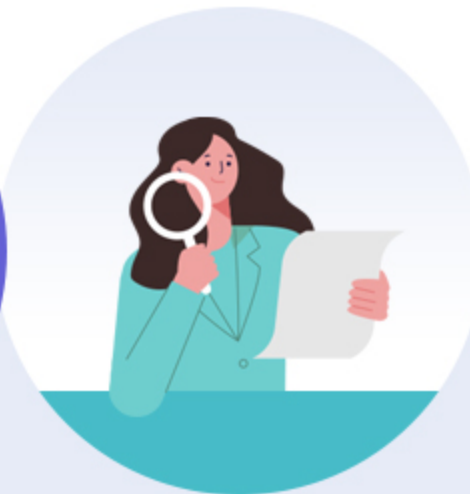
그렇지 않다

85.2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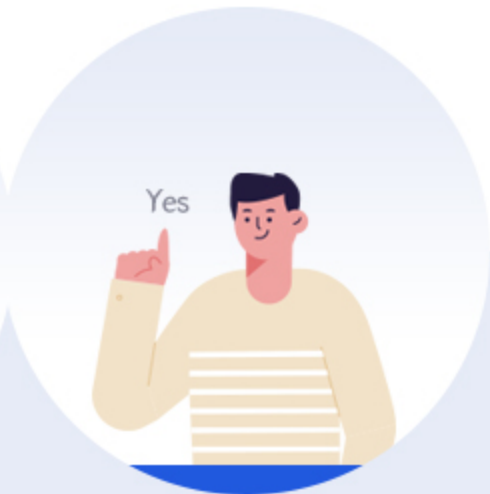
보통이다

11.3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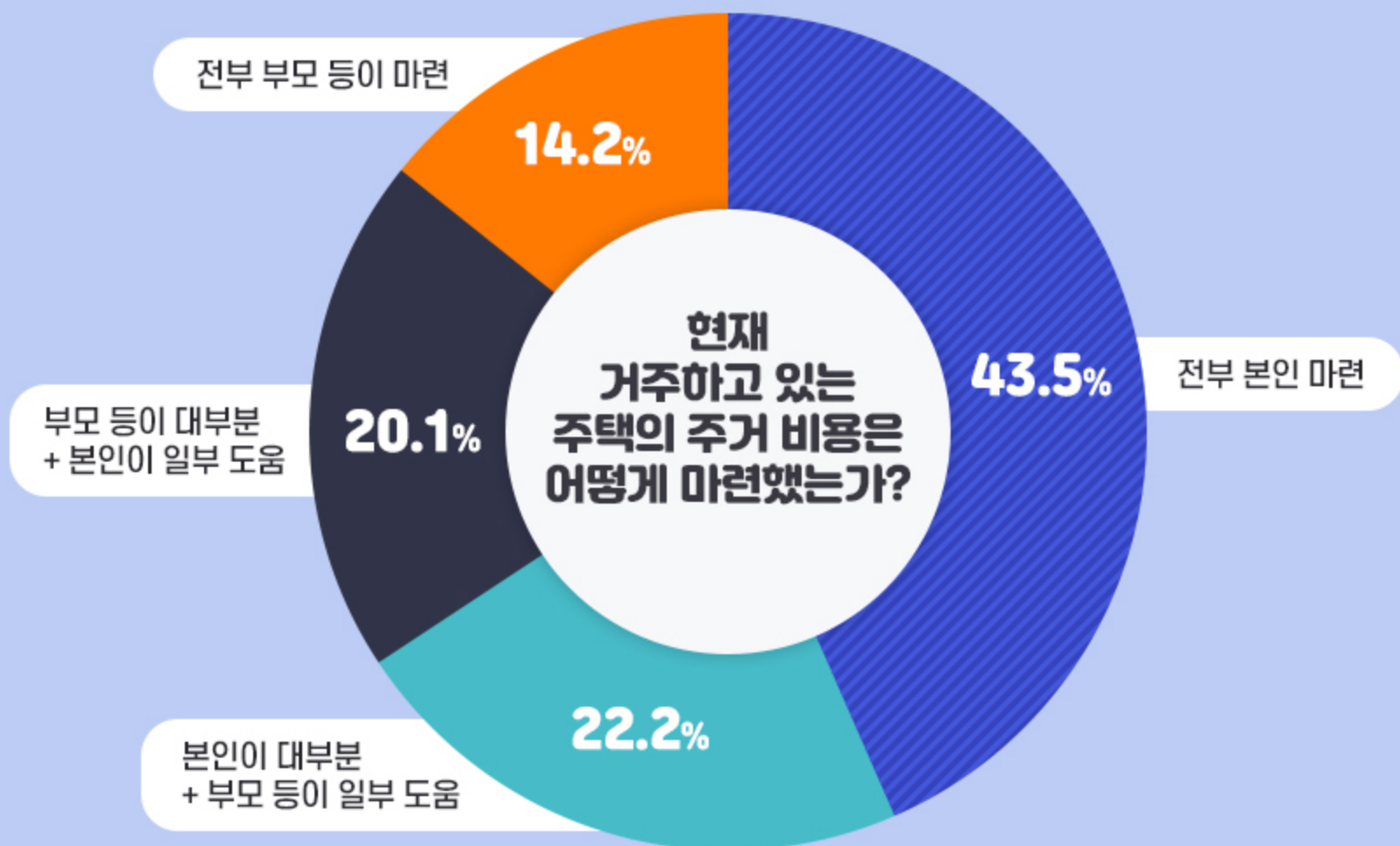
그렇다

3.5%



주택 가격에 부담을 느낀 청년들은
자가, 전세, 월세 등 다채로운 주거형태를
선택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그렇다면 청년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입비,
전·월세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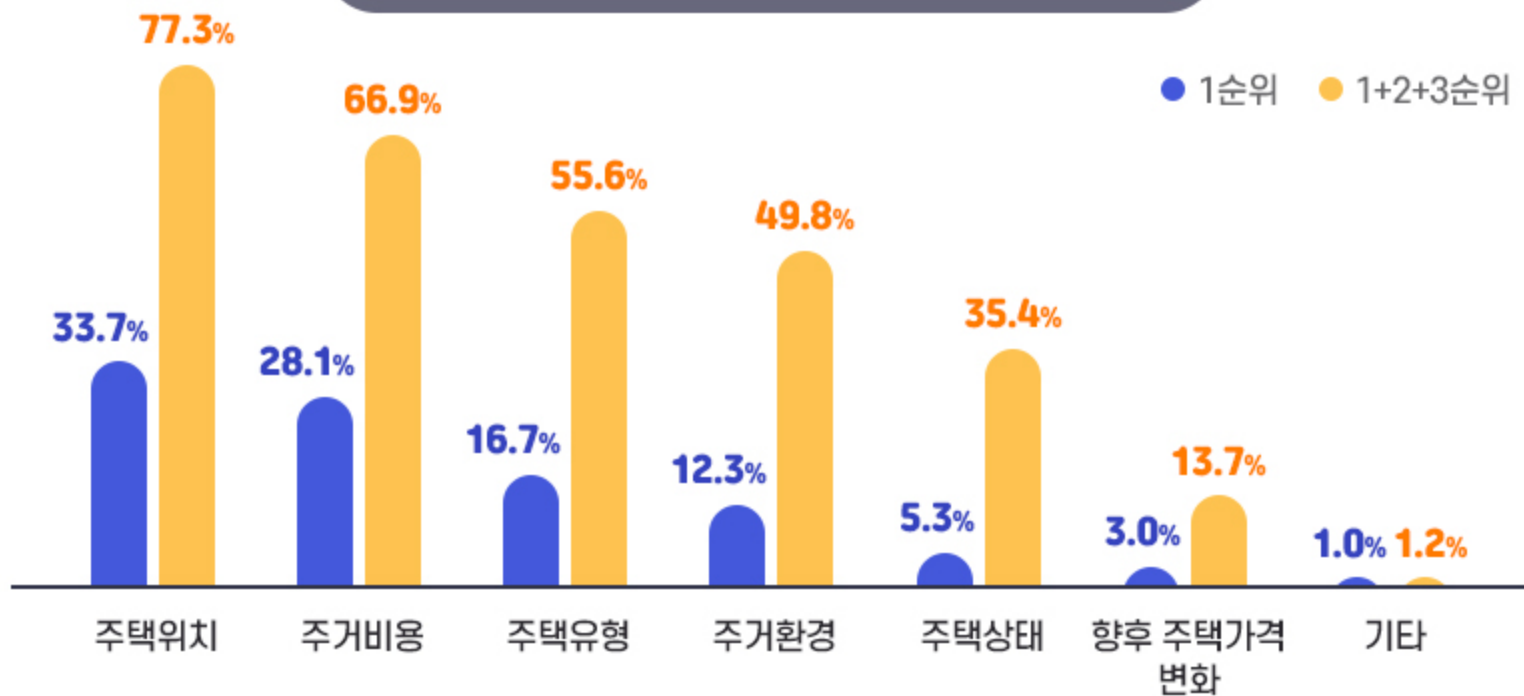


놀랍게도 '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'는 응답이
전체의 43.5%로 가장 많았습니다.

또한 청년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
선택한 이유로 '주택위치'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.
주거비용 역시 전체 응답의 28.1%로 2위를 기록했죠.

현재 집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?

● 1순위 ● 1+2+3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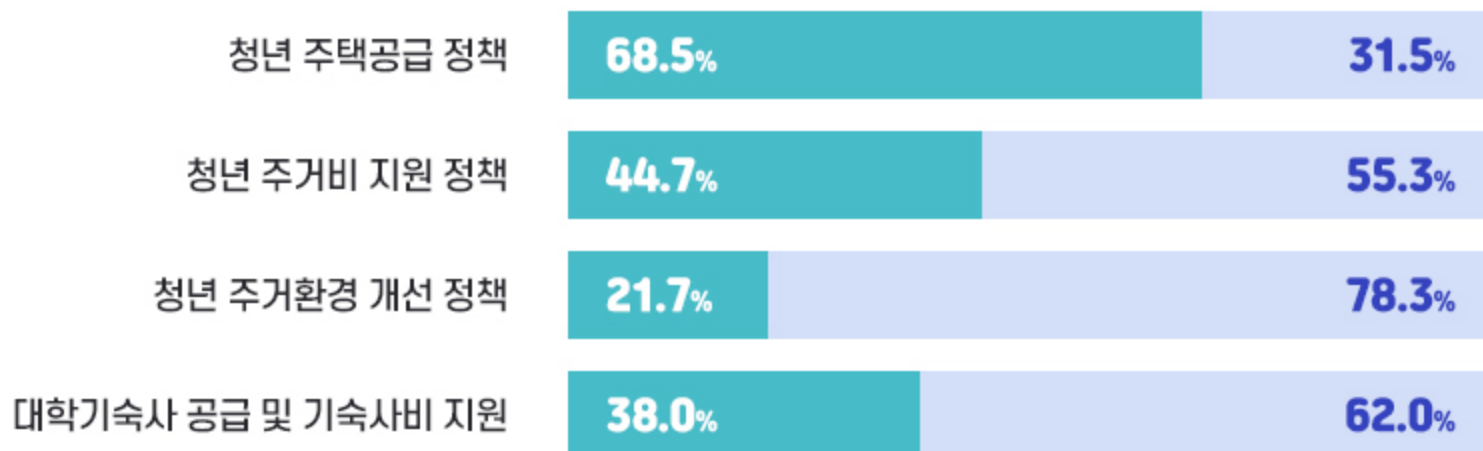


정부는 주택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해
다채로운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는데요.

정부의 주거복지 정책, 청년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?

청년 주거 정책, 어디까지 알고 있나?

● 안다 ● 모른다



조사결과, 정부에서 시행 중인 4대 청년 주거 정책 중
'청년 주택공급 정책'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.

'청년 주택공급 정책' 은 향후 확대되었으면 하는
주거 정책에서도 1순위로 꼽히며,
청년들의 어려운 사정을 대신 전했는데요.

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주거 정책은?

1. 청년 주택공급 정책

63.0%



2.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

23.2%



3.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

7.6%



4.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

6.2%





청년이 곧 미래사회의 주역인만큼
다양한 청년 가구 형태를 존중하고,
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
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.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「청년 사회·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」

김형주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· 선임연구위원)

연보라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· 연구위원)

배정희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· 부연구위원)